

# “25일 경선장 표심이 후보 결정”

### 민주 서울시장 경선 당원 현장투표 50% 반영

### 당락에 결정적 변수... 후보별 지지세 확보 총력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4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현장투표 표심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현장투표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후보 캠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 후보의 압도적 우세보다는 10% 안팎의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결국 현장 투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후보자별로 얼마나 많은 지지자를 투표장에 동원하는가가 당락의 결정적 변수로 꼽히고 있다.

박영선 후보가 지난 21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만나 친노(親盧) 표심 확보에 나서고, 추미애, 신계륜 후보가 22일 이희호 여사를 개별적으로 방문한 것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표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일단, 전반적인 경선 판세를 보면 박영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두터운 지지층을 형성하면서 세를 과시하고 있다. 친노, 486, 재야파 등 다양한 계파들이 박 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등 통합후보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전정배 후보는 정동영 최고위원이

소매를 걸어붙이고 지원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작년 10월 전당대회에서 손 대표에게 2%포인트 뒤질 정도로 만만찮은 세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전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탈락한다면 민주당 대권 후보를 노리고 있는 정 최고위원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내 비주류 모임 '희망연대 2012'도 전 후보의 우군으로 꼽히고 있으며 구 민주계도 지지 대열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전 후보 측은 당일 현장 연설에서 당원들의 가슴을 울리면서 막판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추미애 후보는 구(舊) 민주계의 지원 사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민주계는 당내 지분이 많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 서울 시장 위원장 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김성순 의원을 당선시킬 정도로 저력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구 민주계가 추 후보에게만 표심을 열어줄 것인지의 미지수다.

'486의 망령'으로 통하는 신계륜 후보는 일부 486 인사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원외위원장을 주된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 후보 TV토론 22일 오후 서울 충무로 MBN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경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정배, 박영선, 사회자 정운갑 MBN 정치부장, 추미애, 신계륜 후보자. /연합뉴스

신 후보 측은 “오랫 동안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원외위원장을 꾸준히 관리해왔다”며 “적지 않은 원외 위원장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접전이나 박빙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우위를 점하겠지만 당일 투표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원순 “정치세력이 국민 갈라 놓는다”

10·26 보궐선거 범야권 유력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는 22일 여야 정치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쟁이 아니라 부정적, 과거적이고 이념 틀 속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오히려 국민을 갈라놓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참조한 국대 공성경 대표를 만나 “정당 세력이 자기 목소리를 확실히 내고 논쟁하고 시대적 화두를 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바 안할수 현상, 새로운 정치 바람이라는 것은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안는 통합적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민참여형 시장을 구현해달라’는 공 대표의 격려에 “인터넷 기반을 이용하면 직접민주주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늘 주민의 의견을 참고하고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조용환 살리기’... 한나라 압박

지난 21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참여라는 결단을 내린 민주당이 ‘조용환 헌법재판관 살리기’ 카드도 내세우며 한나라당 압박에 나서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2일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과 정의, 인권수호, 사회적 약자 배려, 사법개혁 등 국민의 염원을 잘 받들어 (임기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발언을 열었다.

양 대법원장에게 덕담을 건넨 것이지만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부각시켜 이념 논란을 이유로 3개월째 조용

환 헌법재판관 선출을 거부하는 한나라당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이제 조 후보자 선출만 처리하면 안 된다”며 한나라당의 대응적인 협조와 결단을 요구했다.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양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참여에 대해 “충정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자평하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는 절대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꾸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 나경원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

### “당에서 힘 모아 달라”... 여권 후보 단일화 필요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이 23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나 최고위원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나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굉장히 어려운 선거다. 당에서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홍준표 대표는 “당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라고 본다. 당에서 한 목소리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당내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권영진 의원은 출마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충환 의원은 이날 오전 후보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시민후보’로 이석연 변호사가 끝내 출마할 경우 보수층이 분열될 수 있다며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홍 대표는 회의에서 “이 변호사는 보수가 분열패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당 차원의 후보 단일화 노력에 대해 “여러 프로세스를 밟고 있지만 지금 말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 드디어 마땅하게 해라”라고 말해 모종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 변호사와 물밑접촉이 계속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면서도 “실종된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2라운드 형태의 경선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변호사의 ‘대승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후보 신청서를 접수했다.

나 최고위원이 여권 후보로 가는 과정에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전날 발생한 ‘자위대 논란’으로 선거 과정에서 약재로 작용할 가능성 커졌다.

나 최고위원이 지난 2004년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모르고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동영상 공개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나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조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행사 내용을 모른 채 갔다. 현장에서 뒤늦게 알고 뒤돌아 왔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한 방송사가 찍은 자위대 행사 영상을 근거로 나 최고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영상을 보면, 기자가 나 최고위원에게 “무슨 행사인지 아세요?”라고 묻자 나 최고위원은 “자위대... 무슨...”이라고 답했다. 나 최고위원 측은 “자위대 관련 행사라는 것을 깨닫고 호텔 입구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대통령 “대북정책엔 원칙 있어야”

### 유엔총회 기조연설



이명박 대통령이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66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선(先) 비핵화·후(後) 경제협력 강화’라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이를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남·북·러 가스관 합의가 급물살을 타고 류우의 신임 통일부 장관이 식량지원과 경제협력에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가 전환점을 맞는 것 아니냐는 낙관적 전망 속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환경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구상도 제시했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지난 2008년부터 국가 장기 성장비전으로 추진해 온 ‘녹색성장’을 소개하고, 아울러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해 최초로 출범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면서 안전한 원자력 활용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 황우여 “예금보호 한도 상향조정 검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2일 현재 5000만원까지의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그것도 포함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전 금융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그 것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대해 “금융은 신뢰가 기본인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금융감독 기능이 부실한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한은의 감독권, 보안 강화, 금융관계 인사 재취업 금지 등 윤리성 강화, 무엇보다도 부실감독이

있을 시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감독기능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금융기관이 돌려받아야 할, 국가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권이 있을 때 그것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정부가 (감독기능 부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비덕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지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 전복장이 전문점

### 전복장이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장을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